

의학교육에서의 행복 관련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Research for Happiness-related Curriculum Introduction in Medical Education

유효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Hyo Hyun Yoo(hhyoo@jbn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의학교육에서의 행복과 관련된 교육과정 도입을 탐색하기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행복을 느끼는 활동 및 행복에 대한 개념 인식구조의 사전-사후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총 36명이었고, 일상재구성법과 네트워크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먹기/대화하기, 여가활동을 하면서 행복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반면 학습활동을 통한 행복을 느끼는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사전-사후의 행복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많은 부분 유사하였고, 사전에는 '경제', 사후에는 '일'이 가장 높은 연결정도중심성을 나타냈다. 행복에 대한 개념의 구조가 1개 그룹에서 자신의 일, 가족의 건강, 삶에 대한 가치, 긍정적인 자아 등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행복에 대한 개념이 피상적인 행복에 대한 개념에서 실제적인 행복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건강을 다룰 예비의사들이 행복에 대한 개념과 가치 등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행복에 대한 의도적인 교육이 도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행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행복 | 개념 | 의학교육 | 의학전문대학원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analyzing pre-post change of concept recognition structure about happiness and activity in which medical school students feel happiness, in order to develop such curriculum accordingly. Research subjects included a total of 36 sophomores attending medical school, and a day reconstruction method and network analysis were applied.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 while medical school students were experiencing a lot of happiness while eating/talking and doing leisure activities, the frequency of feeling happiness through learning activities was shown to be low. Words that expressed happiness before and after were similar in many parts and 'economy' showed the highest degree centrality before and 'work' showed the highest degree centrality after. Because the structure of the concept about happiness was divided from 1 group into 4 groups including one's work, positive self, health of family, value about life etc., perception of the concept about happiness was changed from the concept about superficial happiness to the concept about actual happiness. Therefore, in order for prospective doctors who will treat human health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value about happiness properly, education about happiness is necessary and for this, curriculum related to happiness must be developed systematically.

■ keyword : | Happiness | Concept | Medical Education | Medical School Student |

접수일자 : 2016년 08월 02일

수정일자 : 2016년 09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9월 02일

교신저자 : 유효현, e-mail : hhyoo@jbnu.ac.kr

I. 서론

우리 사회는 대략 2000년 이후 ‘행복하세요.’라는 인사말 등 ‘행복’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행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1]. 행복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경험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복을 측정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함, 삶의 만족도 등의 용어로 바꾸어서 연구 되어졌다[2]. 결국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행복이 성공적인 삶의 원인으로 작용하고[3], 연령, 성별, 수입, 인종, 교육, 결혼상태와 같은 외적 인구학적 변인들은 행복의 개인차를 단지 8-15%만 설명하는 반면, 성격 등과 관련 심리적 변인이 행복의 개인차를 50%이상 설명한다는 것이다[4]. 즉 행복은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고, 외적인 변인보다는 심리적 변인들이 행복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생명을 다루게 될 예비 의사인 의과대학생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생들은 많은 학습량, 장기간의 학습기간, 시험에 대한 부담감, 유급과 성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고[5-7], 실제 삶의 질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8].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에서도 의학 교육 개선 방향 중 하나로 모든 의학교육기관에서는 반드시 ‘학습자의 건강과 심리적 안녕’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상황이다[9].

의과대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상태가 중요하고 관심을 갖아야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는 학습능력을 저하시키고,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직장인 의료현장에서의 정서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되어 환자와의 관계, 동료와의 상호작용,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며[10], 결국 환자에 대한 진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1]. 또 의과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전문직업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긍정적인 정신건강은 전문적인 행동과 신념을

강화하고, 전문성 소진(professional burnout)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주요 연구들은 학업성취[13][14], 학습전략[15] 등과 같은 학습과 관련된 연구와 성격[16], 자기효능감[17], 번아웃[18], 스트레스[19]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행복,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일반대학보다 행복에 대한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인 의과대학생들이 자신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심을 갖도록 행복, 자아성찰 등을 포함하는 보다 다양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20].

행복과 관련된 교육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목표 중 하나는 학생 스스로가 행복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행복에 대하여 어떠한 개념과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과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행복과 관련된 교육과정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과대학생들이 행복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행복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무슨 일이나 사건 등이 학생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지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을 느끼는 일이나 사건들을 매일 회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전과 후에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들이 가지는 행복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의학교육과정에서 행복에 대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거나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문자에 응답을 하는 과정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기간동안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고, 비교적 안정적인 의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의전원 2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학년 학생 중 연구의 목적,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줄 것에 동의한 총 36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남학생은 20명(55.6%), 여학생은 16명(44.4%)이었다.

2.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기간인 6일 동안 하루에 1회, 밤 10:00에 휴대폰을 사용하여 ‘오늘 하루 중 가장 행복을 느꼈던 일(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라는 문자를 보내고, 연구대상자들이 문자를 받은 순간 하루 중 행복을 느꼈던 일을 떠올리며 문자로 회신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사전과 사후에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라는 동일한 개방형 질문을 하였고, 응답한 내용을 수집하여 텍스트 파일로 변환한 후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 분석

가. 행복을 느꼈던 활동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상재구성법(DRM, Day Reconstruction Method)을 응용하였다. 일상재구성법은 응답자가 연구에 참여하기 전날의 하루 일상에 대한 보고를 하고 각 활동에 대한 경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자로 하여금 응답자 각자가 경험한 하루의 활동과 경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듯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한 방법이다[21]. 단, 본 연구에서는 하루 전날의 일상을 회고하지 않고 기억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의 일상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응용하였고, 주요 활동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학생 개인별 응답자가 아닌 문자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문자로 응답한 내용만으로 분석하였다. 응답내용은 선행연구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범주화하였다[1][22].

나. 행복에 대한 개념 인식 변화 분석

사전-사후 행복의 개념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언어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과정은 자료의 전처리 단계, 네트워크 생성 단계, 분석 및 도식화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NetMiner 4.0(Cyram Inc.,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정리하기 위해 학생들이 서술한 텍스트들을 KrKwic을 사용하여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들을 추출하였다. 형태소는 같으나 조사가 다른 단어들은 모두 하나의 형태소로 정리하고, 접속사와 지시어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단어를 정제하였다. 정제를 마친 단어들을 바탕으로 사전-사후 출현빈도를 확인하고, 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20위에 포함되는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네트워크의 생성 단계에서는 KrTitl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어들 간의 동시출현빈도를 바탕으로 동시출현 행렬을 산출한 후, NetMiner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출현빈도를 산출하였다. 공출현빈도는 특정 주제가 유사한 맥락을 가진 주제어들이 함께 사용되는 빈도로 네트워크상에서 연결의 가중치로 산출하였다.

네트워크의 분석단계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네트워크의 밀도, 평균 연결정도, 연결정도중심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네트워크의 도식화 단계에서는 네트워크를 도식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위커뮤니티를 분석함으로써 행복에 대한 개념 인식 구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때 학생들의 인식에 주요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연결가중치가 0.3 이상인 연결들만을 도식화하였다. 노드의 크기는 연결정도중심성이 클수록 크며, 링크의 선 색은 연결의 가중치가 클수록 진하도록 설정하였다. 하위커뮤니티는 노드들 간의 연결이 강하게 밀집되어 구성된 커뮤니티들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행복을 느꼈던 활동 분석

하루 중 가장 행복을 느꼈던 활동을 분석한 결과[표 1], 학생들이 가장 행복을 느낀 활동은 ‘먹기/대화하기’

(42.73%)였다. 대부분 이성친구나 동성친구, 선후배, 교수, 부모, 가족 등과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활동을 할 때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낮잠을 자거나 휴식시간을 즐기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책보는 등의 소극적 여가(21.82%)활동을 할 때 행복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적극적 여가활동(7.27%), 사회적 인정(6.36%), 학습활동(5.45%), 생활유지(5.45%) 등의 순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행복을 경험한 활동

구분	빈도(%)
먹기/대화하기	47(42.73)
소극적 여가활동	24(21.82)
적극적 여가활동	8(7.27)
사회적 인정	7(6.36)
생활유지활동	6(5.45)
학습활동	6(5.45)
기타	12(10.91)
전체	110(100%)

2. 행복에 대한 개념 인식의 변화 분석

1) 단어 출현빈도와 연결정도중심성

학생들이 행복을 표현하는데 사용한 단어들 중 상위 20위에 속하는 단어들의 빈도를 확인한 결과[표 2], 사전-사후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는 20개 단어 중 14개였다.

사전에 학생들은 ‘가족’ (8.18%), ‘사랑’(8.18%), ‘일’(8.18%)을 동일하게 언급하였고, ‘시간’(7.27%), ‘여유’(6.36%), ‘삶’(6.36%)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에 학생들은 ‘사람’(12.87%), ‘일’(8.91%), ‘상태’(6.93%), ‘시간’(5.94%), ‘생각’(5.94%), ‘마음’(5.94%) 순으로 언급하였다. 사후의 ‘일’은 학생들이 표현한 문장을 확인한 결과, 경제적인 활동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순수한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정도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는 ‘경제’(0.27)가 가장 높았고, ‘가족’(0.26), ‘사랑’(0.26)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에는 ‘일’(0.22)이 연결정도중심성이 가장 높았고, ‘시간’(0.18), ‘생각’(0.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사전-사후의 빈도 및 연결정도중심성

	사전			사후		
	단어	빈도(%)	연결정도중심성	단어	빈도(%)	연결정도중심성
1	경제	4(3.64)	0.27	일	9(8.91)	0.22
2	가족	9(8.18)	0.26	시간	6(5.94)	0.18
3	사랑	9(8.18)	0.26	생각	6(5.94)	0.17
4	자신	4(3.64)	0.25	사람	13(12.87)	0.16
5	시간	8(7.27)	0.25	함께	5(4.95)	0.15
6	여유	7(6.36)	0.24	마음	6(5.94)	0.14
7	가정	3(2.73)	0.22	상태	7(6.93)	0.13
8	마음	3(2.73)	0.20	사랑	4(3.96)	0.13
9	건강	6(5.45)	0.20	자신	5(4.95)	0.11
10	주변	5(4.55)	0.19	가치	4(3.96)	0.11
11	일	9(8.18)	0.18	자유	3(2.97)	0.11
12	화목	3(2.73)	0.18	건강	5(4.95)	0.08
13	생각	5(4.55)	0.17	만족	4(3.96)	0.08
14	사람	10(9.09)	0.16	일상	4(3.96)	0.08
15	제약	3(2.73)	0.12	긍정적	3(2.97)	0.08
16	함께	4(3.64)	0.10	소소한	3(2.97)	0.08
17	삶	7(6.36)	0.10	주위	3(2.97)	0.08
18	만족	5(4.55)	0.08	가족	4(3.96)	0.06
19	편안	3(2.73)	0.07	여유	3(2.97)	0.06
20	보람	3(2.73)	0.04	삶	4(3.96)	0.04

2) 네트워크의 밀도와 단어의 평균 연결정도

네트워크에서 단어들 간 얼마나 많은 연결이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밀도를 분석한 결과, 사전 학생은 0.54이었으며, 사후 학생은 0.40이었다. 하나의 단어가 형성하는 평균 연결정도는 사전 학생은 10.3이고, 사후 학생은 7.65으로 사후가 사전보다 학생이 행복에 대한 인식이 더 집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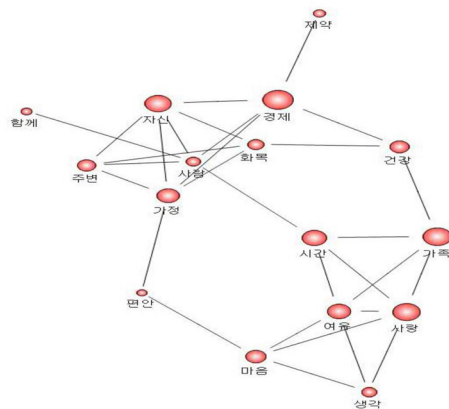


그림. 1 사전 행복에 대한 개념 인식 네트워크

3) 네트워크 도식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도식화하고, 단어들을 그룹으로 분류해본 결과, 사전에는 1개의 그룹으로 나타났지만[그림 1] 사후에는 ‘일’, ‘긍정적 자아’, ‘가족의 건강’, ‘삶에 대한 가치’의 총 4개 그룹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다[그림 2]. 즉 하나의 그룹 안에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던 구조에서 영역이 분명히 나누어진 군집화된 구조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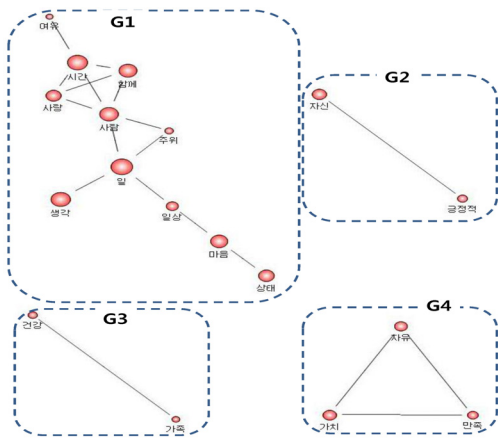


그림. 2 사후 행복에 대한 개념 인식 네트워크
G1: 일, G2: 긍정적 자아, G3:가족의 건강, G4: 삶에 대한 가치

IV.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의전원생들이 하루시간을 보내는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꼈던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복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의전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과 관련된 교육과정 도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전원생들은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친구, 선후배, 교수, 가족 등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활동을 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의전원생들은 먹기/대화하기, 여가활동(적극적 여가활동, 소극적 여가활동)들을 하면서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학습활동을 통한 행복을 느끼는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23]. 결국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습활동을 하면서 보내지만 학습 활동 자체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경험은 드물다는 것이다. 일반대학생들이 학업성취 등을 포함한 개인적 성취를 이루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결과[24]와 관련지어보면 결국 많은 의전원생들은 의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 해소 등과 같은 내적인 학습동기에 의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유급을 하지 않거나 시험에서 좋은 학업성취도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참고 견디는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의전원생들은 학습활동의 어려움과 목표로 하는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느끼는 학습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들을 여가활동과 같은 학습활동 이외의 활동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행복과 학습활동을 대표하는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행복과 학업성취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고[24][25], 학업성취도가 행복을 가져오기보다는 행복이 좋은 학업성취도를 가져온다고 보고되었다[26].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사고가 확장되고[27], 몰입의 경험을 자주하게 되며[28],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29],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전원생들에게 미래의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써만 학습활동을 하도록 두기보다는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활동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 교수들은 학생들이 행복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일주일간 하루의 활동을 마감하는 밤 시간에 1분-2분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일이나 사건 등을 연상하게 한 작은 활동만으로도 행복에 대한 개념 인식 구조가 변화하였다. 행복에 대한 개념의 구조가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 경제적

인 여유로움 등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에서 자신의 일, 긍정적인 자아, 가족의 건강, 삶에 대한 가치 등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행복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사고하게 되었다는 점과 행복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행복에 대한 개념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복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이 명료화된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족과 주변사람들 즉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의 개념에서 자신의 일과 가치 등에 대한 자아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이것을 연결정도 중심성 결과에서 사전에 '경제'라는 단어가 높았지만 사후에는 경제적인 것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라는 단어가 가장 높은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행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매일 휴대폰 문자로 주어지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을 떠올리고, 떠오르는 일을 통해 다양한 정서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찰의 과정을 경험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기반성과 성찰하게 되므로[30] 비록 휴대폰 문자의 단문으로 글을 쓰게 하였지만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 생각 등의 정립이 대학교까지 졸업한 의전원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의과대학에서 행복에 대한 의도적인 교육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행복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생 자신의 행복에 대한 건강한 행복관 정립이라는 교육목표와 행복에 대한 개념, 효과, 실제 생활 속에서의 적용, 실천 강조, 가치의 내면화 등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기성찰, 자기반성, 자기인식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방법을 고안하고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밖에 강의나 소집단활동,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교육내용에 적합하도록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성주의 학습이론에서는 학생들이 가지는 개념이

변화하게 되면 사고와 행동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31]. 따라서 의전원생들에게 행복을 포함한 긍정적인 정서들에 대하여 바른 개념과 가치관을 갖게 한다면,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더욱 잘 함양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좋은 의사, 행복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 의전원생 중 연구에 동의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표성과 일반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년별 학생들과 교수 등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의과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행복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 행복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교육효과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구재선, 서은국,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제2호, pp.143-166, 2011.
- [2] 성보훈, 윤선아, "행복의 정의와 발달단계별 결정요인," 뇌교육연구, 제6권, pp.103-134, 2010.
- [3] S. Lyubomirsky, L. King, and E. Diener,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Psychological Bulletin, Vol.131, No.6, pp.803-855, 2005.
- [4] E. Diener and R. J. Larsen, "Temporal stability and cross-situational consistency of affective, behavioral, and cognitive responses," J Pers Soc Psychol, Vol.47, No.4, pp.871-883, 1984.
- [5] 이금호, 고유경, 강경희, 이혜경, 강재구, 허예라, "의과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Korean J Med Educ, Vol.24, No.1, pp.55-63, 2012.
- [6] 류석환, "의과대학생 학생의 수면과 삶의 질," 생물치료정신의학, 제15권, 제1호, pp.29-36, 2009.
- [7] M. Dahlin, N. Joneborg, and B. Runeson, "Stress and depression among medical students: a

- cross-sectional study," *Med Educ*, Vol.39, No.6, pp.594-604, 2005.
- [8]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한국의과대학생의 정신건강보고서: 전국조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2007.
- [9]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Educating Doctors to Provide High Quality Medical Care. A Vision for Medic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Report of the Ad Hoc Committee of Deans," AAMC, 2004.
- [10] N. Ratanawongsa, S. M. Wright, and J. A. Carrese, "Well-being in residency: effects on relationships with patients, interactions with colleagues, performance, and motivation," *Patient Educ Couns*, Vol.72, No.2, pp.194-200, 2008.
- [11] T. D. Shanafelt, K. A. Bradley, J. E. Wipf, and A. L. Back, "Burnout and self-reported patient care in an internal medicine residency program," *Ann Intern Med*, Vol.136, No.5, pp.358-367, 2002.
- [12] L. N. Dyrbye, W. Harper, C. Moutier, S. J. Durning, D. V. Power, F. S. Massie, A. Eacker, M. R. Thomas, D. Satele, J. A. Sloan, and T. D. Shanafelt, "A multi-institutional study exploring the impact of positive mental health on medical students' professionalism in an era of high burnout," *Acad Med*, Vol.87, No.8, pp.1024-1031, 2012.
- [13] 김자경, 강석훈, 이희제, 양정희, "Multiple Mini-Interview와 기본의학교육 4년간 학업성취도와의 연관성," *한국의학교육*, 제26권, 제3호, pp.223-229, 2014.
- [14] 유효현, "의학전문대학원생의 대학 전공 계열에 따른 학업성취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pp.634-638, 2014.
- [15] 이순옥, 이상엽, 백선용, 우재석, 임선주, 윤소정, 이선희, 감비성, "의학교육에서 학업성취도 예측을 위한 성공적인 학습전략요인에 관한 2.5년 추적연구," *한국의학교육*, 제27권, 제2호, pp.99-105, 2015.
- [16] 김선, 김주현, 허예라, "의과대학생 성격과 학업성취도 비교를 통한 교육방법," *한국의학교육*, 제17권, 제2호, pp.107-119, 2005.
- [17] 소연희, "의과대학생들의 성취목표성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이 수업에 대한 흥미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학교육*, 제20권, 제1호, pp.221-225, 2008.
- [18] 이수현, 전우택, "의과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 소진의 관계," *한국의학교육*, 제27권, 제1호, pp.37-49, 2015.
- [19] 김보미, 노혜린, "의과대학 학생들의 우울감 빈도와 관련 요인," *한국의학교육*, 제26권, 제1호, pp.53-58, 2014.
- [20] 임은비, "의과대학생의 행복과 의학교육의 과제," *의학교육논단*, 제13권, 제2호, pp.25-37, 2011.
- [21] D. Kahneman, A. B. Krueger, D. A. Schkade, N. Schwarz, and A. A. Stone,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Vol.306, No.5702, pp.1776-1780, 2004.
- [22] 장재윤, 유경, 서은국, 최인철, "일상재구성법(DRM)을 통해 살펴본 남녀직장인과 주부의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제2호, pp.123-139, 2007.
- [23] 한승진, 양광희,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살펴본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행복 탐색,"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7권, 제2권, pp.59-72, 2013.
- [24] 구재선, 서은국, "행복은 4년 후 학업성취를 예측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6권, 제2호, pp.35-50, 2012.
- [25] J. C. Rode, M. L. Arthaud-Day, C. H. Mooney, J. P. Near, T. T. Baldwin, W. H. Bommer, and R. S. Rubin, "Life satisfaction and student performance," *ACAD MANAG LEARN EDU*, Vol.4, No.4, pp.421-433, 2005.
- [26]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행복과 학업성취-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

- 제, 제20권, 제4호, pp.329-346, 2014.
- [27] B. L. Fredrickson,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 Psychol*, Vol.56, No.3, pp.218-226, 2001.
- [28] 김미혜, 김희영, "일반화추정방정식을 이용한 경험표집법에 의한 몰입과 행복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지*, 제17권, 제4호, pp.1945-1955, 2015.
- [29] E. Diener, W. Ng, J. Harter, and R. Arora, "Wealth and happiness across the world: Material prosperity predicts life evaluation, whereas psychosocial prosperity predicts positive feeling", *J Pers Soc Psychol*, Vol.99, No.1, pp.52-61, 2010.
- [30] 박해랑, "대학생을 통한 글쓰기의 치료적 효과 연구," *문화와 융합*, 제37권, 제2호, pp.213-254, 2015.
- [31] D. Hammer, "Misconceptions or P-Prims: How May Alternative Perspectives of Cognitive Structure Influence Instructional Perceptions and Intentions?,"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 Vol.5, No.2, pp.97-127, 1996.

저자 소개

유 효 현(Hyo Hyun Yoo)

정회원



- 2001년 2월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석사)
- 2006년 2월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박사)
- 현재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 의학교육, 교육과정 및 평가, 수업개선